

“유초중등 권한배분, 학교중심으로”

김승환 교육감 확대간부회의서 “교육부의 권한 시도교육청이 갖는 게 아니다” 밝혀

전북교육청이 유·초·중등 권한배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김승환 교육감은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교육부의 권한을 시도교육청이 갖는 게 아니다”면서, “교육부의 권한을 시도교육청이 받아서 상당수 권한을 지우고, 학교 스스로 할 수 있고

도움이 되는 권한만 학교로 보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권한배분을 받았을 때 목표와 방향은 학교자치”라며, “핵심은 교사들로 교육과정 편성, 수업평가의 자치를 이루어 가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교육감은 현행 교육지

원청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학교는 교무회의, 교직원회의, 학생회의, 학부모회의 등 자치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현재 교육지원청은 여전히 관리행정을 하고 있다”면서 “지원청”이라는 간판에 맞게 학교를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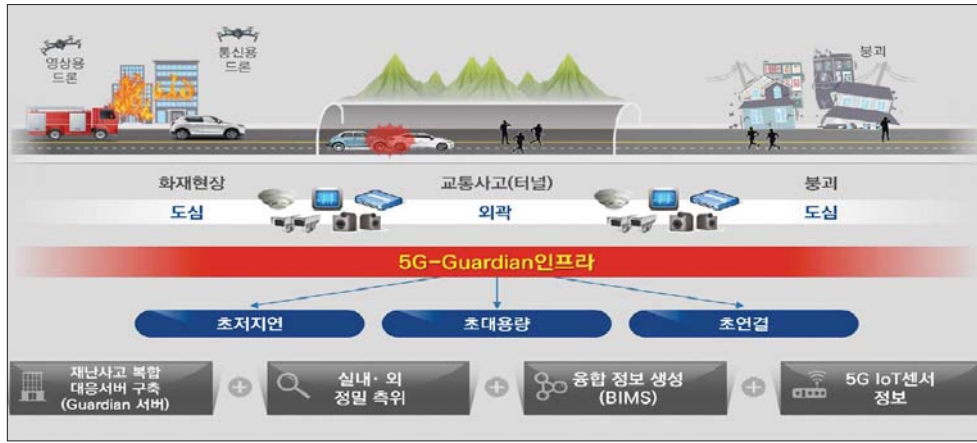
하는 행정시스템으로 재편해야 할 시기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교육권이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된다 해도 행정조직이 커지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행정조직이 작아지면 작아진 만큼 학교로 가게 될 것”이라면서 “아마 전국 17개 시도교육청마다 다양한 모습으로 나올텐데 그게 바로 지방교육자치”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5G 재난안전 범부처 Giga KOREA 사업 수행 기관 선정

전주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년도 범부처 기가코리아(Giga KOREA) 사업’의 재난안전분야 수행기관에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재난분야 기가코리아 사업은 정부출연금 140억원과 민간 부담금 154억이 투입되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5G 기반의 수요자 중심 재난안전 지킴이 서비스 개발 및 실증 서비스 개발을 목표로 한다.

전주대는 2018년 범부처 기가코리아 사업 5개 분야 중 재난안전의 기술 개발과 실증을 담당한다. 특히, 세계 최초로 실시하는 5G LTE 통신모듈 기반 멀티드론 운영시스템 개발을 통해 기존 드론이 가지고 있는 통신장애 및 고화질 영상데이터 실시간 전송의 어려움, 멀티 드론 운영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재난현장지역의 통신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이동형 5G 통신드론을 개발한다고 밝혔다.



전주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년도 범부처 기가코리아(Giga KOREA) 사업'의 재난안전분야 수행기관에 선정되었다.

5G 통신망은 기존 4G에 비해 약 100배 빠른 10Gbps 이상의 전송속도와 4G의 10배인 1ms의 전송지연시간,

50km/h에 이르는 고속이동성의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성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 재난분야에 있어 획기적인

기술전환과 5G 통신기반 재난관련 기기의 혁신적인 기술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평가받는다. /장은성 기자



익산교육지원청이 5일 진로직업 현장체험학습을 개최했다.

익산교육지원청, 특수교육대상학생 직업체험 펼쳐

직업정체감·자심감 향상 기대

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수경)이 5일 진로직업 현장체험학습을 개최했다. 익산 관내 초·중·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 98명과 인솔교사가 참가했다.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진로체험 현장학습은 장애학생들이 다양한 직업을 체험해봄으로써 직업정체감 향상과 자심감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은 완주군 신리 꿈꾸는 아이에서 진로체험을 하며,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고

체험중심의 학습을 통해 지역사회에 일원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향후, 자신의 직업에 대해 탐색하는 시간을 얻게 됐다. 이수경 교육장은 “학생들이 지친 일상과 학업에서 벗어나 천고 마비의 계절에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직업체험을 통해 진로에 대한 직업정체감을 가질 수 있는 일석이조의 기회였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 및 학부모, 교사가 함께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진로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미래 과학자의 꿈 실현한 자랑스러운 'S.O.S, 소원'

완주 화산중학교 동아리 학생들 우주풍선 발사 프로젝트 '대성공'

중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제작한 일명 '우주풍선'이 무려 3시간의 비행을 마친 후 무사히 착륙, 미래 과학자의 꿈을 실현함으로써 감탄을 자아내고 있다.

완주 화산중학교(교장 양교준) 자율동아리 'S.O.S, 소원' 기정을 비롯한 동아리부원들이 주도해 날린 우주성층권 탐사용 풍선(일명 '우주풍선')이 지난달 22일 오후 4시 36분경 경상북도 김천시에서 무사히 착륙, 이를 수거하는데 성공했다고 학교 측이 밝혔다. 학생들은 1,200기상관측용 풍선에 동영상 촬영장치, 온도, 기압, 고도 등의 센서를 탑재한 아두이노, 위치추적장치 등을 달아 성층권까지 띄워 올렸다. 이번 실험은 풍선이 성층권에서 터진 후 지상으로 떨어지면 위치

추적을 통해 우주풍선 수거 및 자료를 수집하는 프로젝트다. 화산중학교 자율동아리 'S.O.S, 소원'의 이번 우주 풍선 발사 프로젝트는 외부 지원이나 도움 없이 학생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준비해 단번에 성공을 거두었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를 둘 수 있다. 학생들은 “풍선이 하늘 높이 띄워졌을 때의 감동과 함께 경북 김천 문당동 당곡마을 논에서 극적으로 다시 재회했을 때의 기쁨은 내내 가슴 벅찬 감동으로 기억될 것이다”며 성공의 기쁨을 회고했고 “수집된 자료들은 화산중 축제, 완주교육지원청 로컬 에듀, 풍아리 발표대회 등을 통해 공유될 계획이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찾아가는 한국어교실' 운영

전북교육청은 지난 4월부터 도내 다문화 가정 학생의 한국어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도내 유·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한국어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2018년 11월1일 기준)는 도내 12개 시·군 38개교 6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11월까지 운영된다. '찾아가는 한국어교실'은 전북교육청 다문화교육지원센터가 신설되면서 올해 5월 첫 걸음을 내딛었다. 20명으로 시작된 현재는 38명 교육봉사단으로 운영되고 있다. 교육봉사단은 각 지역별 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한 초·중등 퇴직교원 13명과 도내 12개 시·군(전주시 외 11곳)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추천한 한국어 강사 25명으로 이뤄졌다. 연중 '찾아가는 한국어교실'에 참여해 온 교육봉사단원들은 “아이들이

새로운 말을 할 때마다 반복해서 노력했던 모습이 벌써 그리워진다”, “교재와 장소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교육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학교와 도교육청에 감사드립니다”, “엄마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도 몰랐던 아이가 6개월간의 학습을 통해 학교 생활을 원활하게 하는 모습을 보고 교육의 힘을 새삼 느꼈다”며 교육봉사활동을 마무리 짓고 있다. 전북교육청 다문화교육지원센터 관계자는 “내년도 운영의 밑그림을 그리고, 추후 개선할 점을 찾기 위해 현장 의견수렴과 유무선 소통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며, “한국문화와 한국어 보다 생동감 있고 실제적인 발화상황에서 익히기 위한 운영비 지원 방안도 세심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은성 기자

군산대, 브랜드 명품이야기 공모전 개최

이달 30일까지 전북 도민 누구나 공모 가능

군산대학교(총장 광병선)는 대학 인지도 제고 및 홍보 콘텐츠 발굴을 위해 '군산대학교 브랜드 명품이야기' 공모전을 연다. 공모분야는 1인 영상 콘텐츠, 사진, 대학탐방 스토리로 군산대학교와 관련된 이야기를 담고 있는 내용이면 된다. 이 공모전은 군산대학교와 관련된 미담이나 스토리, 특정한 장소에 얽힌 추억, 군산대학교 인문산학협력센터 홈페이지에서 발굴해 군산대학교에 대한 친숙한 이미지를 구축하고, 다양한 홍보콘텐츠로 활용하기 위해 진행된다. 응모대상은 퇴직자를 포함한 군산대학교 교직원, 졸업생 포

함 군산대학교 학생, 전라북도 도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공모 기간은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고, 발표는 12월 중 홈페이지에 공고 및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대상(1점)에게는 200만원, 최우수상(2점) 각 100만원, 우수상(3점) 각 50만원, 장려상(6점) 각 2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응모접수는 군산대학교 인문산학협력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http://hlc.kunsan.ac.kr/>)으로 하고, 자세한 사항은 군산대학교 인문산학협력센터 홈페이지 참조 및 유선 문의(063-469-4290~1)가 가능하다. /군산=김정훈 기자

